『서울대학교 法學』 제56권 제1호 2015년 3월 1～12면
Seoul Law Journal Vol. 56 No. 1 March 2015. pp. 1～12

南泉 權五乘 敎授 年譜·論著 目錄

Ⅰ. 年 譜

본　　적 : 경북 안동시 남선(南先)면 이천(梨泉)리 200번지
생년월일 : 1950년 1월 12일(실제: 1949년 음 7월 2일)
부 : 權大洽　　모 : 金慶和
처 : 우일강　　자 : 혁태, 혁주
자부 : 이유미, 조윤주
손자녀: 순유, 순범, 예지
e-mail: o_kwon@hotmail.com, kwonos@snu.ac.kr

[학력]

1965. 2	안동중학교 졸업
1968. 2	용산고등학교 졸업
1973.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법학사)
1975.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농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1987.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기업결합규제법에 관한 연구 － 독일법과 한국법의 비교 －)

[서훈·표창]

1996. 11. 1	국민훈장 동백장
2009. 12. 31	청조 근정훈장
2011. 10. 15	서울대학교 20년 근속공로표창

[경력]

1975. 6～1978. 6	육군 제3사관학교 교관(법학담당 전임강사)
1978. 7～1979.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1979. 3～1980. 8	동아대학교 법정대학 전임강사
1980. 9～1992. 2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2. 2～1996.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993. 3～2003. 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상담실장
1994. 3～1996.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담당 학장보
1996. 3～2014.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공정거래법 분야) 주임교수
1996. 4～2001.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1. 4～2009.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8. 11～2012. 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장
2009. 3～2015. 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 8～2014. 8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장
2015. 3～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학외 경력]

1978. 9～현재	한국민사법학회 회원, 간사 및 이사
1978. 9～현재	한국경제법학회 회원, 간사 및 이사
1983. 4～2006. 3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부회장
1990. 9～2010. 12	한국법제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994. 8～1998. 8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1995. 7～1998. 8	통일원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
1997. 2～1998. 8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01. 5～2005. 8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02. 5～2006. 5	사단법인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2004. 6～2006. 3	사단법인 아시아법연구소 소장
2005. 5～2006. 3	한국경쟁포럼 이사
2005. 9～2006. 3	방송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5. 9～2006. 3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2006. 3～2008.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06. 3～현재	사단법인 한국경쟁법학회 명예회장
2008. 8～2011. 12	사단법인 아시아법연구소 소장
2010. 2～현재	KCC 사외이사
2010. 5～현재	CLA(Christian Leadership Academy) 대표
2010. 12～2014. 12	한국법제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2012. 1～현재	사단법인 아시아법연구소 이사장
2014. 2～2015. 1	한국경쟁포럼 이사
2015. 2～현재	한국경쟁포럼 회장

[장기해외연구 및 국제교류]

1984. 6～1986. 7	독일 Freiburg 대학 방문학자(Humboldt 재단 지원)
1989. 6～1989. 8	독일 Freiburg 대학 방문학자
1998. 8～1999. 4	미국 Harvard Law School, East Asian Legal Studies 방문학자
1999. 5～1999. 8	독일 Mainz 대학 방문교수
2000. 7～2000. 8	일본 早稻田 대학 방문교수
2000. 7～현재	중국 東北師範 대학 객좌교수
2001. 7～2001. 8	독일 Mainz 대학 방문교수
2002. 7～2002. 8	독일 Mainz 대학 방문교수
2003. 3～현재	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 (Journal of Competition Law) Herausgeberbeirat (편집고문)
2003. 11～2003. 12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방문교수
2005. 7	독일 Mainz 대학 방문교수
2010. 8	독일 Mainz 대학 방문교수
2011. 6～현재	중국 東北師範 대학 人文學院 법률계 객좌교수
2011. 11～2014. 10	중국 延邊대학 겸직교수
2011. 11～현재	중국 延邊科學技術 대학 겸직교수
2011. 12～현재	중국 華東政法 대학 경쟁법연구소 겸직연구원
2012. 7～2012. 8	독일 Mainz 대학, Marburg 대학 및 Freiburg 대학 방문교수
2014. 7～2014. 8	독일 Mainz 대학 방문교수

Ⅱ. 論著 目錄

1. 단행본

- 『경제법』(공저), 법문사, 서울, 초판(1978), 개정판(1981), 제2개정판(1983), 전정판(1989), 신정판(1991), 신고판(1995), 제5판(1996).
- 『경제법』(공저),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초판(1986), 개정판(1987), 제3판(1988), 제4판(1989).
- 『기업결합규제법론』, 법문사, 서울, 1987.
- 『민법의 쟁점』, 법원사, 서울, 1990.
- 『EC경쟁법』, 법문사, 서울, 1992.
- 『공정거래법 실무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서울, 1993.
- 『민법특강』, 홍문사, 서울, 1994.
-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서울, 초판(1994), 제2판(1996), 제3판(2001), 제4판(2002), 제5판(2005).
- 『공정거래법 심결례 100선』(공저), 법문사, 서울, 1996.
- 『공정거래법강의』(편저), 법문사, 서울, 1996.
- 『사법도 서비스다(법조개혁: 김영삼 정부 개혁 총서08)』. 미래미디어, 서울, 1996.
- 『독일 경쟁법』(역저), 법문사, 서울, 1997.
- 『경제법』, 법문사, 서울, 초판(1998), 제2판(1999), 제3판(2001), 제4판(2002), 제5판(2005), 제6판(2008), 제7판(2009), 제8판(2010), 제9판(2011), 제10판(2013), 제11판(2014).
- 『공정거래법강의 II』(편저), 법문사, 서울, 2000.
- 『자유경쟁과 공정거래』(편저), 법문사, 서울, 2002.
- 『제조물책임법』(공저), 법문사, 서울, 2003.
- 『통신산업과 경쟁법』(편저), 법문사, 서울, 2004.
- 『공정거래와 법치』(편저), 법문사, 서울, 2004.
-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의 지원』(공저), 서울대 출판부, 2005.
- 『시장경제와 법』, 서울대 출판부, 서울, 2006.
-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공편), 법문사, 서울, 2007.
- 『韓國經濟法』(중국어 번역), 북경대학 출판부, 2009(역자: 최길자).
- 『독점규제법』(공저), 법문사, 파주, 초판(2010), 제2판(2012), 제3판(2014).
- 『법으로 사랑하다(자전적 에세이)』, 홍성사, 서울, 2010.

- 『독점규제법 30년』(편저), 법문사, 파주, 2011.
-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2. 논문

(1) 민법

- “토지소유권의 본질”, 대학원논문집(경희대) 제4집 하권(1980. 11).
- “토지소유권의 법적 성질”, 현대 민법학의 제문제(청헌 김증한 박사 화갑기념)(1981).
- “독일 매매법상 제조자 및 판매자의 품질보증(역)”, 경희법학 제17권 제1호(1981. 12).
- “의료과오와 의사의 주의의무”, 민사판례연구, 제4권(1982. 5).
- “토지소유권의 법적 성질과 그 제한”, 법과 토지, 삼영사(1982. 5).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법률신문, 제1468호(1982. 11).
- “계약해제의 효과”, 사법행정, 제24권 제4호(1983. 4).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민사판례연구, 제5권(1983. 5).
- “명예의 의의와 명예훼손의 모습”, 언론중재, 제3권 제3호(통권 제8호)(1983. 9).
- “서독의 체약강제이론”, 계약법의 특수문제, 고시계(1983. 12).
- “의사의 주의의무”, 사법행정, 제25권 제1호(1984. 1).
- “보통거래약관의 효력한계”, 사회과학논총, 창간호(1984. 7).
- “보통거래약관의 내용통제”, 법과 약관, 삼영사(1984).
- “사법과 사적자치(역)”, 경희법학, 제21권 제1호(1986. 11).
- “사적자치의 기초이론”,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문제(송헌 안이준 박사 화갑기념)(1986).
- “일조권의 법적 보호”(공저), 경희법학, 제23권 제2호(1986).
- “소유권유보부매매”,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매창 고창현박사 회갑기념)(1987. 10).
- “리스계약에 관한 연구”(공저), 경희법학, 제22권(1987. 12).
- “의사의 설명의무”, 현대법의 과제(송암 전창조박사 고희기념), 진영문화사(1987).
- “리스(시설대여)계약의 성질”, 민사판례연구, 제10권(1988. 3).
- “의사의 설명의무”, 판례월보, 제212호(1988. 5).
- “신원보증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법행정, 제29권 제6호(1988. 6).

- “계약자유와 계약공정”, 계약법의 제 문제(사법연구 3), 고시계(1988).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판례월보, 제219호(1988. 12).
- “독일법상 인공수정에 관한 문제점(역)”, 경희법학, 제23권 제1호(1988).
- “의사의 설명의무”, 민사판례연구, 제11권(1989. 4).
- “토지문제와 토지공개념”, 인권과 정의, 제155호(1989. 7).
- “토지소유권의 남용”, 민사판례연구, 제12권(1990. 4).
- “불법행위법의 형성과 전개”, 손해배상법의 제 문제(성헌 황적인 박사 화갑기념), 박영사(1990).
- “의사의 주의의무”, 민사법학, 제8권(1990. 4).
- “토지소유권의 규제방안”, 법과 사회, 제2권 제1호(1990).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판례월보, 제248호(1991. 5).
- “농지소유권의 제한”, 토지법학, 제7호(1991).
- “포괄근보증에 관한 일반거래약관의 효력”, 판례월보, 제256호(1992. 1).
-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민사판례연구, 제14권(1992. 5).
-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 법률구조, 통권 제3호(92년 여름/가을 합병호)(1992. 9).
- “공동불법행위”, 사법연구, 제1권(1992. 10).
-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인권과 정의, 제195호(1992. 11).
- “할부매매”, 사법행정, 제34권 제1호(1993. 1).
- “이른바 예문해석의 문제점”, 민사판례연구, 제15권(1993. 5).
- “한국의 농지문제와 농지제도개선방안 – 농지법시안을 중심으로”(공저), 농업경영정책연구, 제20권 제1호(1993).
- “의료과오와 의사의 주의의무”, 민사판례연구, 제4권(1993. 1).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민사판례연구, 제5권(1993. 5).
- “강요에 의한 증여계약”, 판례월보, 제282호(1994. 3).
- “통일후 토지제도의 정비”, 부동산법학, 제3권(1995).
-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대 법학, 제36권 제1호(통권 제97호)(1995. 5).
- “사용자책임에 대한 검토”, 상사법논총(제남 강위두 박사 화갑기념)(1996. 2).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행정지도”, 민사판례연구, 제18권(1996. 5).
- “사용자책임: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 민사법학, 제15호(1997. 4).

⑵ 경제법

- “농업협동조합법에 관한 판례연구(1)”, 사법행정, 제17권 제10호(1976).
- “농업협동조합법에 관한 판례연구(2)”, 사법행정, 제17권 제11호(1976).
- “서독의 소비자단체소송”, 법조, 제29권 제1호(1980. 1).
- “현대사회의 소비자의 지위와 권리”, 법과 소비자보호, 삼영사(1981. 4).
-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보호”, 법과 소비자보호, 삼영사(1981. 4).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경제법연구, 창간호(1982).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상의 카르텔규제”, 경희법학, 제18권 제1호(1983. 9).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 경희법학, 제18권 제2호(1983).
- “미국 독점금지법상 삼배배상제도”, 노동법과 현대법의 제 문제(남관 심태식 박사 화갑기념), 법문사(1983. 5).
- “서독 경쟁제한방지법상의 중소기업의 협동화촉진”, 경희법학, 제19권 제1호(1984. 12).
- “독일의 기업결합규제의 형성과 전개”, 경희법학, 제20권 제1호(1985. 12).
- “유럽공동체의 경제법과 각국의 경제법(역)”, 동아법학, 제3호(1986).
- “기업결합규제의 문제점”, 경제법연구, 제2호(1986).
- “한국독점규제・공정거래법의 입법론적 문제점 (상), (중), (하)”, 법률신문, 제1654호, 제1655호, 제1656호(1986. 10).
- “소비자보호와 법률가의 역할”, 한일・일한변호사협의회, 제6호(1987. 10).
- “독일의 기업결합규제법”, 현대경제법학의 과제(소산 문인구 박사 화갑기념), 삼지원(1987. 11).
- “소비자문제와 다수당사자소송”, 다수당사자소송연구(법무자료 제90집), 법무부(1987).
- “북한의 경제법”,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1988).
- “독점규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률학의 제문제(유기천 박사 고희기념)(1988. 6).
- “소비자문제와 피해구제”, 피해구제업무편람, 한국소비자보호원(1988).
- “에너지문제의 경제법적 규제”, 경희법학, 제23권 제2호(1988).
- “경제법의 의의와 본질”, 경희법학, 제23권 제1호(1988. 10).
- “독점규제법의 과제와 방향”, 법과 사회, 창간호(1989. 8).
-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경제법・상사법논집(춘강 손주찬 교수 정년기념)(1989).
- “경제체제의 사회이론적 기초”, 경희법학, 제24권 제1호(1989. 12).

- “EEC조약 제86조”, 경쟁법연구, 제2권(1990. 12).
- “경제법의 이론과 체계(역)”, 서울대 법학, 제31권 제1・2호(1990. 8).
- “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소비자운동방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1990).
- “중소기업의 협동화와 독점규제법”, 경희법학, 제25권 제1호(1990. 12).
- “중소기업의 협동화와 독점규제법”, 법경제연구(I), 한국개발연구원(1991).
- “EC의 기업결합규제”, 공정거래, 제3호(1991. 4).
- “EC조약 제85조 제3항”, 경쟁법연구, 제3권(1991. 12).
- “독점규제법의 형성과 전개”, 한국법사학논총(영산 박병호 교수 화갑기념), (1991. 10).
- “소비자보호와 단체소송”, 인권과 정의, 제197호(1991).
- “한국 경제법의 과제와 전망”, 법제연구, 창간호(1991. 12).
- “부당한 공동행위규제의 검토”, 경희법학, 제26권 제1호(1992. 2).
- “남북한 통신교류의 촉진을 위한 법제의 정비”, 서울대 법학, 제33권 제2호(통권 제90호)(1992. 9).
- “재벌의 문제점과 그 대책”, 서울대 Fides, 제35호(1992. 12).
-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법적규제”, 법과 사회, 제7권 제1호(1993. 1).
- “독점규제법상의 재벌규제”, 인권과 정의, 제197호(1993. 1).
-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법제개혁방안”, 법제연구, 제4호(1993. 6).
- “독점규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제205호(1993. 9).
- “불공정거래행위와 소비자보호”, 경쟁법연구, 제5・6권(1994. 6).
- “경제질서와 법적 규제”(공저), 시장경제와 한국의 자본주의(한림과학원총서 28), 소화(1994).
- “국제화와 경제개혁”, 법과 사회, 제10권 제1호(1994).
- “약관의 규제”,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김형배 교수 화갑기념)(1994. 10).
- “약관규제법의 실효성제고 방안”, 서울대 법학, 제35권 제3호(1994. 12).
- “독점규제법상의 적용제외”, 법경제연구(II), 한국개발연구원(1995).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인권과 정의, 제234호(1996. 2).
-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대한 경제법적 검토”, 법과 사회, 제13호(1996. 6).
-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기업법 및 회사법상의 문제(역)”, 법과 사회, 제13호(1996. 6).
-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인권과 정의, 제241호(1996. 9).

-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독점규제법 시행지침’”(공저), 서울대 법학, 제37권 3・4호(통권 제102호)(1996. 12).
- “우리나라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질서경제저널, 제1권(1997. 10).
-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책임 – 시정조치 전치의 의미를 중심으로”, 판례월보, 제328호(1998. 1).
- “Transformation of Economic Order in Korea”, *WuW* (1999. 11).
-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혁방향”, 법제연구, 제17호(1999. 12).
- “한국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 서울대 법학, 제40권 제4호 (2000. 2).
- “한국독점규제법의 개선”, 서울대 법학 제41권 제1호(2000. 6).
- “시장경제의 발전과 사회조화의 실현”, 법제연구, 제19호(2000. 11).
- “日本財閥의 解體와 그것이 韓國財閥政策에 주는 意味”, 서울대 법학, 제41권 제4호(2001. 2).
-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경쟁법연구, 제7권(2001. 4).
- “리트너 교수의 생애와 학문”, 경쟁법연구, 제7권(2001. 4).
- “계약자유와 소비자보호”, 서울대 법학, 제42권 제2호(통권 제119호)(2001. 7).
- “契約自由与消費者保護”, 民商法雜誌, 第3号: 中国(2001).
- “契約自由と消費者保護”, 横浜國際經濟法學, 第10卷 第3号: 日本(2002. 3).
- “한국의 약관규제”, 경쟁법연구, 제8권(2002. 2).
- “韓國的約款規制法”, 民商法雜誌, 第4号: 中国(2002).
- “21세기 독점규제법과 정책에 대한 전망: 일본 반독점법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참고로(역)”, 경쟁법연구, 제8권(2002).
- “소비자보호의 계약법적 구성과 한계: 독일 민법개정과 일본 소비자계약법 제정을 중심으로”(공저), 서울대 법학, 제43권 제3호(2002. 9).
- “韓國 反獨占法的 形成及發展”, 國際貿易(Intertrade): 日本(2003. 2).
- “우리는 왜 경쟁을 해야 하는가?”, 경쟁법연구, 제9권(2003).
- “경제적 경쟁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서울대 법학, 제45권 제1호(통권 제130호) (2004. 3).
- “Die Rolle des Staates im wirtschaftlichen Wettbewerb”, 서울대 법학, 제45권 제1호(통권 제130호)(2004. 3).
- “독일경쟁법의 집행체제”, 경쟁법연구, 제9권(2003. 4).
- “독점규제법의 집행기구 및 절차의 개선”,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03. 5).

- “韓國における不公正取引と不正競爭行爲に對する規制”, 國際商事法務, Vol. 31, No. 5(通卷 第491号)(2003. 5)～Vol. 32, No. 4(通卷 第502号)(2004. 4).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경쟁법의 과제”, 법제연구, 제26호(2004. 6).
- “Applying the Korean Experience with Antitrust Law to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Law in China”,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ol. 3, No. 2 (2004).
- “전력산업과 공정거래법”, 서울대 법학, 제46권 제1호(통권 제134호)(2005. 3).
- “競爭秩序の確立を沮害する諸要因”, 神戶法學雜誌, 第55卷 第1号: 日本(2005. 6).
- “Retrospect and Prospect on Korean Antitrust Law”, *Journal of Korean Law*, Vol. 4, No. 2 (2005).
- “아시아 경쟁법의 비교”, 경쟁법연구, 제12권(2005. 8).
- “일본 독점금지법의 집행(역)”, 경쟁법연구, 제12권(2005).
- “중국 독점규제입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역)”, 경쟁법연구, 제12권(2005).
- “정보통신산업과 독과점규제”, 서울대 법학, 제46권 제4호(통권 제137호)(2005. 12).
- “Some Issues o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Korea”, in Thomas Würtenberger (hrsg.), *Rechtsreform in Deutschland und Korea im Vergleich, Schriften zum Internationalen Recht*, Band 163, Duncker & Humblot · Berlin, 2006.
-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East Asia”, FIW Conference in Innsburg (2008. 2).
- “경제질서와 사법상의 법률관계”(공저), 비교사법, 제14권 제1호(2007).
-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과 경쟁법”, 한양법학, 제21권(2007).
-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과 법률가의 역할”, 동북아법연구, 제2권 제2호(2008).
- “약관규제법집행의 개선”, 아세아여성법학, 제12호(2009).
- “Efficient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경쟁법연구, 제20권(2009. 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시스템”, 서울대 법학, 제51권 제4호(2010).
- “독점규제법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경쟁법연구, 제23권(2011).
- “한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경쟁법연구, 제24권(2011. 11).
- “시장경제와 사회조화의 실현”, 경쟁과 법, 창간호(2013. 10).
- “중소기업관련법과 정책의 개선”, 서울대 법학, 제55권 제2호(통권 제171호)(2014. 6).

⑶ 사법개혁·법학교육

- “법학교육의 개혁방향”, 법과 사회, 제9권 제1호(1994. 5).
- “사법제도개혁의 방향과 문제점”, 서울대 법학, 제35권 제1호(1994).
- “변호사의 성공보수”, 판례월보, 제272호(1993. 5).
- “변호사의 성공보수”, 민사판례연구, 제16권(1994. 5).
- “변호사보수에 관한 검토”, 법과 사회, 제11권 제1호(1995. 5).
-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 고시계, 제40권 제7호(통권 제461호)(1995. 6).
-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 한국법학원보, 제70호(1996).
- “법학교육개혁의 과제와 추진”, 법학연구, 제7권(1997. 10).
- “삶의 질 향상과 법률서비스”, 법과 사회, 제18권 제1호(2000).
- “법학교육개혁의 과제와 추진”, 법과 사회, 제18권 제1호(2000).

⑷ 환경법

- “배출부과금제도와 유사한 제도”, 환경법연구, 제5권(1983. 12).
- “지하수오염의 방지대책”(공저), 환경법연구, 제7권(1985).
- “환경소송의 효용과 한계”, 민법학논총 제2(후암 곽윤직 교수 고희기념), 박영사, 1995.

⑸ 아시아법

- “동아시아공동시장의 형성과 경쟁법의 과제”, 서울대 법학, 제46권 제3호(통권 제136호)(2005. 9).
- “법제정비 지원의 효과적 추진”, 아세아여성법학, 제13호(2010. 11).
- “아시아법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대 법학, 제52권 제4호(통권 제161호)(2011. 12).
- “크리스천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 DALS 저널, 제2권 제1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2012. 4).
- “亞洲法研究: 過去, 現在与未來”, 法制与社會發展(Law and Social Development) 第十八卷 第五期(总第一○七期), 2012/5.

3. 연구용역 보고서

-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협동조합법에 관한 연구(공동), 아산사회복지재단(1980. 8).
- 불공정약관 규제제도의 정착과 장기발전방향(책임), 공정거래위원회(1994. 12).
- 양질의 법률서비스와 국가경쟁력 – 사법개혁의 배경과 의의 – (1995. 6).
-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공동), 서울대 사회대 세계경제연구소(1997. 5).
- 전문자격 서비스분야 규제개혁방안에 관한 연구(책임), 공정거래위원회(1997. 12).
-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책임), 공정거래위원회(2000. 12).
- 미국 경쟁법이론 및 판례의 분석과 시사점(책임), 공정거래위원회(2001. 12).
- 제조물책임법의 국내 담배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책임), 2002.
- 주요국의 심결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책임), 공정거래위원회, 2002.
-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책임), 공정거래위원회, 2003.
- 사업자단체가 개입된 카르텔유형 및 근절방안 연구(책임), 서울대 법학연구소, 2004.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관계의 경제법적 정당화에 관한 연구(책임)(2004. 11).
-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및 공정경쟁관련법령 제・개정연구(책임),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4. 11).
- 체제전환국 법정비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아시아법연구소(책임)(2004. 12).
-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전기수급거래 이론정립 연구(책임), 서울대 법학연구소(2005. 7).
- 공정경쟁 법령구조의 위상 및 연관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 법체계 제개정에 관한 연구(책임),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5. 11).
- 미국의 경제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 법제연구 – 2009년 경기부양법(ARRA)을 중심으로(책임), 법제처(2009. 9).
- ‘국제개발협력과 법’의 관점에서 본 베트남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책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2011. 5).

『서울대학교 法學』 제56권 제1호 2015년 3월 13～65면
Seoul Law Journal Vol. 56 No. 1 March 2015. pp. 13～65

〈대담〉

남천 권오승 교수 정년기념 대담

일　　시 : 2015. 2. 12(목) 15:00～18:00
장　　소 : 서울대 서암관 506호 백충현 세미나실
대 담 자 : 이봉의(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신은주(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민호(광장 변호사)
서　정(김앤장 변호사)
황태희(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녹취·정리 : 이상훈(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

〈정년소감, 근황〉

이봉의 : 먼저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권오승 : 예. (웃음)

이봉의 : 이제 정년을 며칠 남겨놓고 계시는데, 정년을 맞으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권오승 : 정년소감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쁘신 중에도 멀리서 오게 해서 혹시 부담을 준 게 아닌가 한편 고맙고 한편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와줘서 감사하고, 특히 신동권 위원은 공직에 매인 분인데, 시간을 내 줘서 감사합니다. 정년을 앞두고 소감이 어떠냐고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빨리 정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쉽지 않습니까?", "정년이 연장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하고 묻기도 하는데,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부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하고 묻는데, 저는 이젠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이제 드디어 자유로워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조금 예민해져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보니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대학에서 연구실을 빼는 것이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연구실을 옮기려고 하니까 '저 많은 책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하나?'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깐 '내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학교에 나와서 연구실에 앉아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랬으니깐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과(大過) 없이 잘 마무리해서 참 좋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구나!' 하는 생각과 아울러, 변화과정에서는 몇 가지 신경 쓰이는 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집사람과 정년한 뒤에 뭘 할까 하는 얘기를 하다가, 저는 솔직히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마음껏 쉬세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집사람은 "당신은 워크홀릭(workholic)이라 쉬라고 해도 쉬지 못 할 사람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내가 진짜 못 쉬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요.

신동권 : 사모님이 선생님께서 못 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웃음)

권오승 : 집사람 생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면 자기가 상당히 불편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어디든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웃음), 다른 하나는 내가 계속 일을 해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신은주 : 앞으로 얼마나 잘 쉬시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사모님께서 그 말씀을 후회하시도록. (웃음)

권오승 :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대구와 포항을 잠깐 다녀왔거든요. 사흘 정도 예정하고 갔었는데 이틀 만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거 보세요. 사흘도 제대로 못 쉬고 오시면서 뭘 쉰다고 그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쉬는 것도 싶지 않더라고요. (웃음)

신동권 : 지금 정년을 앞두고 계신데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평소 운동은 계속 해 오셨는지요? 앞으로 퇴임하시면 건강관리가 더 중요해질 텐데, 특별하게 건강관리를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권오승 : 저는 원래 타고난 체질이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성인병도 나타나고, 과체중이고 그래요. 공정위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한 시간 정도 운동하고 8시 반에 사무실에 나갔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편해져서 그런지 계속 운동부족인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골프를 치고 오면 훨씬 기분이 상쾌해지고, 저는 골프장에 가면 카트를 안 타고 계속 걸어 다니니깐, 몸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그래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라도 등산을 하든지 헬스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저녁에 30분 정도 산책은 하는데, 그거로는 운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려면 땀이 날 정도로 해야 하는데, 운동부족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신은주 :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산행을 즐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떠신지요?

권오승 : 요즘은 산행은 잘 안 해요.

신은주 : 산행 대신에 다른 운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권오승 : 골프하면서부터 산행이 줄었어요. 한동안은 공이 잘 안 맞으니깐, 어떻게 하면 좀 실력이 더 늘어서 남들한테 폐 안 끼치고 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조금 재미가 붙었어요. 조금만 더하면 90은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동 웃음) 골프는 운동은 안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나갔다가 오면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저술〉

서 정 : 그동안 저술하신 책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어떤 것인지요?

권오승 : 민법 쪽은 첫 번째 단행본으로 정리한 책이 『민법의 쟁점』(1991)이고, 경제법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경제법』 교과서와 『기업결합규제법론』(1987)이 애착이 가는데, 후자는 박사학위논문을 출판한 것으로서, 물론 지금은 논의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갔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독점규제법 30년』(2011)은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한 것으로서, 나름대로 한 단계를 마무리한 것이니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돼요.

〈선생님의 성품, 신앙을 통한 변화〉

이봉의 :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선생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선생님의 성품이나 성향이 미묘한 조합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깐 안동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대인관계나

예절 면에서 상당히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안동의 색깔이 묻어나는 점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경제법이라는 전공이나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안동의 전형적인 시각과는 분명히 다른,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색깔이 조합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동 웃음)

권오승 :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 한번은 제자 중의 한 사람이 선생님의 사고는 상당히 진보적인데, 윤리관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선거 때에 보면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우리 자식들이나 며느리들과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집들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대체로 제 나이 또래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웃음) 그리고 학생들과 얘기할 때도 저는 별다른 격의가 없어요. 어떤 때에는 제가 학생들보다 더 진보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관심을 가진 사회문제가 농촌문제였는데, 처음에는 내가 시골출신으로서 농촌문제는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공부를 더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니깐 그게 단순히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더라고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농촌은 어쩔 수 없이 열악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또 경제법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깐, 사고는 상당히 진보적인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안동에서 태어났고 안동 권가이고,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깐, 윤리관은 아직 보수적인 측면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요즘 젊은 애들 중에는 건배할 때 술잔을 내 잔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리는 애들이 간혹 있던데, 속으로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못 본 척하고 지나치기도 했는데, "아까 보니까, 너는 내 잔보다 높이 올리지 않더라."고 했더니, "아빠, 제가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으면서 자랐는지 아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일동 웃음) 그러니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야단맞으면서 자란 애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혀 지적받지 않고 자란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저에게는 눈에 거슬리

고 그래요. 저는 아마 환경, 교육, 성장과정 그런 것들은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사고는 자유롭게, 진보적이고 리버럴하게 형성된 것 같아요. 신은주 교수가 옛날에 제 연구실에 있을 때, 당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때인데, "가장 유교적인 성품을 지닌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 하면서 상당히 놀라워하고 그랬는데. (웃음) 그렇게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윤리관에는 여전히 유교적인 요소가 남아 있고, 제가 널리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밑바닥에는 여전히 장유유서(長幼有序)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남아 있어서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웃음)

신은주 :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의 대인관계라든가, 성품 면에서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시점에 제가 선생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강의실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자유주의를 신봉하시고 진보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연구실에 와서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예의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과연 어떤 모습이 선생님의 진짜 모습일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선생님은 두 모습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선생님께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죽 자라오신 분들의 경우 굉장히 과묵하고, 감정표현이 서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께서도 예전에는 제자들에게 감정표현을 드러내서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선생님께 배운 제자들은 선생님께 가까이 가기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신앙적으로 거듭나신 후에 성격이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변하시고, 감정표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원래 선생님의 성품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잘 알아채지 못했던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권오승 :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엄한 편이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둘째는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엄한 분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아빠는 아빠가 생각하는 기준만 잘 지켜주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기준을 침범할 때에 비로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서는 큰 아들은 사춘기 때 그 기준을 수없이 넘나들면서 야단도 많이 맞았고, 둘째는 아예 그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서

근접조차 못했고, 엄마는 그 기준을 자유롭게 넘나든다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준만 명확하면 어떤 때에 화를 내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만 잘 지켜주면 불편한 것이 전혀 없을 텐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변화는 옛날에는 학생들이 연구실에 찾아오는 것이 즐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수는 열심히 시간과 싸우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자꾸 찾아와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이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고 돌아가지 않잖아요. 한참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 "사실은요…" 라고 하면서 본론을 꺼내거든요. (웃음) 그런 학생들이 몇 명만 다녀가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면 처음부터 방어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그러한 태도를 애써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나와 상담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시간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연구에는 다소 방해가 되더라도 좀 더 진지하게 들어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자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깐 그 전에 나를 만났던 제자들은 나를 어려워하는데 반하여, 그 이후에 만났던 제자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간혹 선배들이 학교에 와서 후배들이 나를 대하는 것을 보고, '옛날에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거나 '저 정도면 선생님이 옛날 같으면 야단을 치셨을 텐데 지금은 야단도 안 치시는구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웃음)

신동권 : 저도 느끼는 것은 저는 선생님을 오래 뵈었기 때문에 지금은 편하게 말씀드리고 또 선생님께서 성품이 온화하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학 1학년 때 선생님께 처음 민법총칙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30대 초반의 젊은 교수이셨음에도 굉장히 엄하셨어요. 당시 저희 학교(경희대)에서도 학내 문제가 많아서 데모를 많이 했는데, 나가더라도 수업은 듣고 나가야 한다고 하셔서 그런 문제들로 학생들과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80년대다 보니깐 사회문제도 많았잖아요. 그런 문제의식도 많이 가지고 계셨지만, 학생들의 생활지도면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하시니깐 학생들은 헷갈려 하고 그랬어요. (웃음) 지금은 오래 지내다 보니깐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시고, 거기다가 기독교 신앙까지 겹쳐지다 보니깐 더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옛날에 배웠던 제자들은 아직도 선생님을 매우 엄하신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신은주 : 저는 석사과정 때 이화여대 대학원에 채권법 세미나를 하러 오신 선생님을 처음 뵈었는데, 당시 이대에서는 인기폭발이었거든요. (웃음)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선생님께서 몸담고 계신 학교(경희대)에서도 인기폭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학생들이 '가까이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고 하며 옆에 가기도 어려워하고 그랬어요. (일동 웃음)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페미니스트이셨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신 분인데 페미니스트이셔서, 처음 선생님의 이력을 보고 추정했던 모습과 실제 선생님을 뵙고 나서 알게 된 모습이 너무 많이 달랐거든요. 저희들은 아직도 선생님께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웃음)

권오승 : 그전에 경희대 얘기부터 하면, 제가 경희대에 가서 채권법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대학의 분위기가 신임교수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용되어 왔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강의하기 전날은 제대로 자리에 누워서 자본 적이 없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어서 자면 잠이 깊이 들까봐 방바닥에 책상을 놓고, 잠시 눈만 붙이고 일어나서 다시 연구할 정도로 참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쳤어요. 학생들도 참 우수했고요. 학생들은 '젊은 교수가 와서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게 한편 대견스럽기도 하고 맹랑하기도 하고, '그래 우리 한번 싸워보자, 너희들이 나를 넘어뜨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고, 나도 너희들한테 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연구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다보면 서로 상승하게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대신에 저는 학생들이 적당히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때 민법공부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해도 B학점을 받기가 어렵고, 다른 과목은 한 시간만 공부해도 A학점을 받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사실 민법이 법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과목이고, 또 나한테 민법총칙부터 민법연습까지 다 들어야 하니깐, 학생들이 나한테 잘못 보이면 졸업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법이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웃음) 그만큼 제가 당시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제가 열심히 노력하니깐 학생들과 신뢰가 형성되고 영향력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수는 강의와 연구를 제대로 해야지, 그것을 제대로 안 하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바뀌어서 저는 참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눈길만 줘도 좋아할 정도로 순진하고 착한 학생들이었는데, 독일에 갔다가 돌아오니깐, 당시 사회분위기가 어느 지방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수의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러던 때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교수가 하기 나름이지, 제대로 하면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옛날 생각만 하고 학생총회에 참석해 보니깐, 학생들이 학내문제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들은 원래 학생총회에는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나도 한마디 하자."고 했더니, 사회를 보던 학생이 못마땅해 하면서 마지못해 발언할 기회를 주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씩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처럼 학생들을 모아서 밖으로 나가서 한바탕 해보려고 했던 주최 측에서는 난감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산통을 다 깨어버린 셈예요. 그랬더니 학생회 간부들이 저를 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 사람을 제거하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때부터 그들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어요. 사립대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은 순수하니까 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믿었던 학생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깐, 학교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어요. 그전까지는 아침 일찍 학교 연구실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연구실에 있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강의가 있을 때만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그 후에 1991년 여름 서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깐 경희대 제자들한테 참 미안하더라고요. 경희대에서는 제가 열심히 가르치기는 했으나 학생들을 깊이 배려해 주거나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돌이켜 보면 '학생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해주고 더 배려해 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늘 경희대 제자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대에서는 이미 신앙적인 변화를 경험한 뒤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신은주 : 그런데 이대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의

페미니스트 성향이 참 좋았어요.

권오승 :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여자 제자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한다는 말을 들어요. (일동 웃음) 저도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웃음) 왜냐하면 내가 아들만 둘이고 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며느리들한테는 제가 참 잘하는 편이거든요. 아들한테보다는 며느리한테 먼저 전화하고 며느리들과 참 가깝게 지내고 그래요. 둘째 며느리의 경우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시댁얘기가 나오면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요즈음도 며느리들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래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깐 내가 딸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제가 여성들한테 더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웃음)

이봉의 : 저희도 이대에 강의가면 다 페미니스트가 될 거에요. (일동 웃음)

권오승 : 그런데 신 교수는 내 연구실에 와있으면서, 내가 여학생들을 대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 정 : 저는 선생님을 서울대 오신 다음에 1992년에 처음 뵈었는데요, 다정다감하고 학생들 배려도 잘해주시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에서야 선생님의 과거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동 웃음)

신동권 : 예, 제가 선생님의 과거를 들춘 것 같은데 (일동 웃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에 대한 기억 중에서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지난 주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는데 선생님 퇴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선생님을 뵙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면서 회포를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했어요. (일동 웃음)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웃음)

권오승 : 지금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민법총칙을 여섯 번 들은 학생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 듣고 기말시험을 보던 중에 컨닝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어요.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고 나서 재수강으로 듣다보니깐 욕심이 났나 봐요. 그래서 연구실로 불려 왔는데, “선생님, 이번에 학점 못 받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

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말이, “그런 이유로 죽으려면 죽어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깐 정말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후 겨울방학 중에 한 달쯤 지나서 그 학생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내용은 처음에는 저를 많이 원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선생님께서 진정으로 자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지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곧바로 답장을 쓰고, 그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 그 학생을 만나서 격려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기말 시험 때 보니까, 시험 보러 온 학생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전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롭던지. 지금도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한테는 학점을 잘 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엄격하게 평가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저 분은 왜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가!’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서 정 : 선생님께서 서울대 오시기 전 얘기가 상당히 흥미진진하네요.

(일동 웃음)

〈유년시절과 서울 용산고 유학〉

황태희 : 안동에서 중학교까지 다니시고, 고등학교는 서울 용산고로 유학을 오셨는데,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공부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고교시절 추억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권오승 : 제가 서울 올라오게 된 계기는, 자서전(『법으로 사랑하다』, 2010)에도 썼지만, 우리 집에서 안동중학교에 가려면 낙동강 건너서 10km정도 가야 되었는데, 평소에는 이 강을 배 타고 건너거나 외나무다리를 건너서 가고 했는데, 여름에 홍수가 나면 그 강을 건널 수 없으니까 산길로 돌아서 가면 16km, 약 40～50리 정도

를 걸어서 가야 했어요. 그러니깐 집에서 아침 6시에는 출발해야 9시 전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우리 동네는 예닐곱 가구밖에 없는 작은 동네였는데, 하루는 새벽 5시 반쯤 되었는데, 옆집에 사는 친구의 어머니가 제 방 앞에 오셔서 "오승아!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학교에 가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책가방을 챙겨가지고 그 집으로 갔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하면, 그 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놓고 우리 집을 내려다보니까, 우리 집에는 내 방에만 불이 켜져 있고, 부엌에는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저에게 "어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거라."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으로 갔는데, 정작 그 친구들은 아직 안 일어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자기 애들에게 "오승이는 새벽에 벌써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던데, 너희들은 뭐하는 것이냐?"고 하신거예요. 그러니깐 내가 아침부터 그 친구들한테 꾸중을 듣게 한 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 분은 우리 아버지의 친구이신데, "그만 둬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오승이나 늦잠 자는 우리 애들이나 다 안동고등학교에 갈 텐데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은 별다른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었어요. '과연 그럴까? 열심히 노력한 나나 열심히 하지 않은 다른 애들이나 차이가 없단 말인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날 아침에 저는 안동고에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웃음) 그렇게 하려면 대구나 서울로 가야 하는데, 대구에는 아무 연고가 없고, 서울에는 형님이 후암동 쪽에 연고가 있었는데, 후암동에 있는 용산고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상경했는데, 막상 상경해 보니깐, 서울로 유학 보낼 만한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힘들었지요. 처음에는 형님의 인척 집에 몇 달 신세를 지다가, 해방촌, 지금 남산 제3호 터널 입구 쪽에 방 하나를 얻어서 자취도 하고, 그때 연탄가스 중독도 당하고, 이러 저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담임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집에 들어가서 입주과외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한 집에 들어갔다가 다른 데로 옮겨서 두 번째 집에서는 상당히 오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다행히 주거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공부하기에는 좋지 않았어요. 입주과외라고 하지만, 그 학생과 같이 먹고 자고 학교에도 같이 가고 하면서 공부도 가르치고 생활지도도 하고 그러는 거였어요.

서울에 와서 보니깐, 차이가 크더라고요. 안동에서는 평소에 열심히 하고 시험보기 전날에는 복습만 한번 하고 시험을 보았는데, 서울 애들은 평소에는 열심히 안

하다가 시험 때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처음에 시험을 봤더니 반에서 제가 10등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것으로 보면 1~2등은 해야 하는데. (웃음) 그 다음에는 시험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니깐 반에서 1~2등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서울 애들은 시험 때 열심히 하는구나!' (웃음) 두 번째는 경상도 사투리가 문제가 되었어요. 내 딴에는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선생님께서 질문하셔서 대답을 했는데,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빨개져서 "왜 웃느냐?"고 물으니깐 내가 선생님한테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일동 웃음)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경상도 사투리가 앞에 액센트가 있어서 뒷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다보니깐 반말한 것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깐 제가 기가 죽어서 그 다음부터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어요. (웃음) 그러고 나서 방학해서 고향집에 내려갔더니 친구들이 서울 간 지 얼마 되었다고 벌써 서울말 쓰느냐고 하고 (일동 웃음) 서울에서는 사투리 쓴다고 그러고 안동에 내려가니깐 서울말 쓴다고 그러고. (웃음) 나중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보니깐, 저는 서울에서 같이 사투리를 써줄 사람이 없었어요. 입주과외나 하숙을 하다보니깐 서울 사람들하고만 살았지, 안동 사람하고 접하지 않다보니깐, 액센트 말고는 사투리가 상당히 많이 교정되었어요. 친구들 중에서 가족과 함께 서울에 올라온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와서도 안동 사투리가 남아 있었는데, 저는 사투리를 그렇게 고쳤어요. (웃음)

이민호 : 서울 처음 오셨을 때 문화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대학 올 때 처음 올라와서 그랬는데, 선생님께서는 더 하셨을 것 같은데요.

권오승 : (웃음)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해방촌에 있었을 때에 텔레비전에 훼스탈 광고가 나오는데, 사위가 처갓집에 가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 대접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나오는 멘트가 "훼스탈이 있으니 마음껏 드세요."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시골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인데, 서울 사람들은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구나. (웃음)

신은주 : 당시 안동이 서울과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컸었나요?

권오승 : 실제로 그랬는지, 내가 그렇게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어서 집에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동에서는 텔레비전을 못 보고, 라디오만 듣다가 텔레비전으로 그런 영상을 처음 보니깐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신동권 : 태어나신 해가 6.25 바로 전인 49년생이시면, 영화 <국제시장>에서 흥남부두 넘어왔던 세대랑 비슷하신데, 그 영화 보시면서 옛날 기억 같은 것 많이 나지 않으셨는지요?

권오승 : 옛날 어릴 때에 찍은 사진 중에서 그야말로 지금 보면 북한의 꽃제비 정도나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 찍은 어린애들 사진 같은 것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인데, 옛날에는 대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저도 이밥(쌀밥) 좀 싸가지고 가고 싶었죠. 그런데 쌀밥을 싸오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보리밥에다가 쌀 조금 섞어서 지은 밥 정도이고, 그때는 고구마도 귀했고, 집에 오면 점심에 좁쌀로 지은 밥을 먹었는데, 그것이 아주 깔깔하잖아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저는 끼니를 거른 적은 없었지만, 여유 있게 살지는 못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과를 한 권 사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사는 삼촌이 와서 주신 용돈으로 겨우 전과를 한 권 샀을 정도예요.

신은주 :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나요?

권오승 : 저는 공부하는 게 좋았었나 봐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집에서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일손이 달리니깐 '꼴베 와라.', '나무 해 와라.', '일 해라.'는 얘기는 자주 들었지만, '공부해라.'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상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제가 "아버지, 제가 6년 간 학교 다니는 동안 학교에 한번 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지.", "그럼 공부하라는 얘기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지."라고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공부는 하라는 소리를 안 해도 잘하니깐 놔뒀고, 일은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안하니깐 하라고 했지." (일동 웃음)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말은 하지 말고 딴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나은 것 같아요.

신은주 : 공부를 시키고 싶으면요? (웃음)

권오승 : 공부보다 어려운 일을 해봐야 공부가 쉬운 줄 아는데, 세상에 공부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니깐, 공부를 안 하려고 하지요. 아버지가 그런 의도는 아니셨지만,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면서 장사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늘 일손이 달렸어요. 처음에는 머슴을 한 명 두었는데,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으니깐 나중에는 그것도 안 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깐 늘 일손이 달려서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매일 일하라고 하셔서, 나는 나무도 하고 꼴도 베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 할머니의 지론이 '남자는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중학생 때 소를 몰고 쟁기질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아요. 아마 그거 직접 해본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공부하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 정 : 선생님 댁의 가정교육법을 저도 좀 참고해 봐야겠습니다. (일동 웃음)

〈법대 진학과 대학원 진학 결심〉

서 정 : 학창시절 공부를 좋아하셨지만 대학 진학할 때 법학을 선택하셨잖아요. 다른 학과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권오승 : 그게 안동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 시골에서는 대체로 법대가 아니면 육사(육군사관학교)를 지망했거든요. 법대에 가서 장관이나 판·검사가 되거나 육사에 가서 장군이 되고자 했어요. 그때는 아마 군사정권 때라서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육사에는 별로 끌리지 않았고, 법대에 가서 판·검사보다는 행정관료 쪽으로 생각했어요. '행정공무원이 돼서 장관이나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법대에 온 것이고, 법학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공부를 잘하면 문과에서는 법대, 이과에서는 공대를 지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요.

서 정 : 결국 장관은 하셨지만(일동 웃음), 그 과정은 행정공무원 쪽은 아니었고,

학자의 길을 계속 걷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에서 그렇게 되셨는지요?

권오승 : 그것은 제가 법대에 들어와서 1학년 때에 선배들의 권유로, '농촌법학회'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가 농촌출신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회에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시키는지 경제사에서 시작해서 정치사 등등에 관한 책도 읽고 농촌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에 대한 세미나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제가 서서히 사회과학적 훈련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정치경제학적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의 경제발전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이다.'라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회과학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면 법과 제도는 상부구조이잖아요. 그것은 하부구조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우리 때는 학생들이 행정고시는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부가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관료생활을 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법시험을 보는 길이 있는데, 법학에 큰 흥미가 없다가 보니깐 그 쪽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부 때 제 성적표를 보면, '법(法)'자 안 들어가는 과목은 모두 다 A학점인데, (웃음) '법'자 들어가는 것 중에는 A학점이 별로 없어요. 그때 경제학 교수 중에서 『제2자본론』이라는 책을 쓰신 임원택 교수님이 법대에 계셨고, 재정학 교수로 배복석 교수님도 법대에 계셨어요. 저는 경제발전론, 경제정책론, 재정학 등 그 분들의 강의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법학은 너무 형식 논리적이었어요. 법대에 들어 와서 제일 실망했던 것이, 「피데스(Fides)」라는 잡지에 '대가(大家)들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김증한 교수님과 곽윤직 교수님 사이의 논쟁이 실렸는데, 그 주제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즉 설립등기를 하기 전이냐 후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문제인가 싶었어요. '그게 대세에 무슨 영향을 주는가? 등기하기 전이면 어떻고 후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젊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던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젊은이들이 목숨바쳐 추구해야 할 꿈과 비전은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과 같은 거창한 주제들이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대가들의 논쟁'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너무 작은 주제들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깐 법학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대학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전과를 하

려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때 경제학과에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 평소에는 경제학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웃음), 하루는 모리스 돕(Maurice Dobb)의 경제발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더니, 강의시간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때 저는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혼자 독학해서 안 되고 경제학과에 가서 배워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결국 전과를 하지 못하고 법대를 졸업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대학원에 진학할 때에도 법학과로 가느냐, 경제학과로 가느냐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 법학과에 들어가서 전공분야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황태희 : 농촌법학회 활동을 하시고, 특별히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대학원에 진학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권오승 : 그때까지 저는 농촌운동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저희 선배들은 농촌운동을 하려면 농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방법으로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깐)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농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법대 나와서 사회과 교사의 자격으로 거창에도 가고 마산이나 창원에도 가고 그랬어요. 저도 그것을 선택지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월 유신(維新)이 나고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저는 서울을 떠나 부여에 내려가서 한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당시 농촌운동을 하면서 만난 선배의 소개로 서당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서암(瑞巖) 선생님이라고 율곡 선생님 후예로서 대표적인 한학자 중의 한 분이신데, 그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반기고 예뻐하셨어요.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저와 다른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군산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부여에서 버스를 타고 또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학을 공부하다가 그만 두고 관상학을 전공해서 관상을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한테 제 관상을 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그 분이 같이 갔던 다른 친구는 제쳐 놓고 저에게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 저것을 물어 보더라고요. “장래희망이 뭐냐?”고 묻길래, “시골에 가서 중고등학교 선생님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깐, “너는 중고등학교 선생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선생을 하려면 대학선생을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 줬어요.

그 후에 제가 그 서당에서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읽고, 가슴이 벅차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인들은 모두 사회문제를 비판하기만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율곡 선생은 국가의 현안문제를 낱낱이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뒤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소문인데, 율곡 선생은 그 내용 중에 단 한 점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자기의 목을 치라고 전제한 뒤에 그 상소문을 써서 올린 거예요. 저는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날 어떤 학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사회의 제반 문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제시하고 나아가 그 대안까지 저렇게 명쾌하게 제시할 수 있겠는가!' 엄청난 감격이었어요. 저도 율곡과 같은 학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음) 제가 학문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좀 더 실천적인 것, 즉 사회운동을 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막상 학문을 하려고 하니, 어떤 학문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법학을 해야 하나 경제학을 해야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당시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농업경제학을 전공하신 건국대 김병태 교수님을 찾아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건국대에 와서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사립대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법학은 분야가 매우 넓으니까 법학 안에서 하고 싶은 분야를 한 번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 들어가서 그 길을 찾아보기로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황태희 : 그런데 대학원에 오셔서 민법을 전공하게 되셨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권오승 : 그때, 우연히 일본 동경대학 와가즈마 사카에(我妻 榮) 교수의 『민법과 나』라는 책(자서전)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여기에 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통상 민법 교과서에서 소유권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절대성, 전면적 지배권성, 통일성, 탄력성, 항구성 등과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은 소유권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뒤에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법학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형식논리에 매달리지 말고, 사물에 대한 실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법적인 논리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구나!' 그렇게 해보니깐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깐 그 분이 유럽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자본주의와 사법(私法)의 관계를 해명하겠다고 하시면서 민법 연구서를 시리즈로 출판하셨고, 또 민법에 관한 교과서도 시리즈로 출판하셨죠. 그렇게 해서 제가 소유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 공부하다가 보니깐 여러 가지 논리적인 측면을 벗어나는 이념적인 측면의 문제도 나오고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계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넓혀가다가 보니깐 민법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웃음) 자네들이 처음 내가 하는 민법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하는 강의가 다른 교수들의 강의와 다른 점이 있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아마 그런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제가 법대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법학적인 개념이나 논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외우고 익히는 식의 공부를 했다면 저도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민법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저의 관심은 좀 더 깊은 곳에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얻은 성과를 정리해서 얘기하니깐 종래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법학을 공부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설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신동권 : 선생님은 강의를 문제 중심으로 하셨어요.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선생님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민법총칙 강의를 하실 때에 다른 분들이라면 이론을 추상적으로 설명하셨을 텐데, 선생님께서는 '너희들이 아침에 학교에 오면서 버스 탈 때를 생각해보면, 버스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니, 그런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게 다 계약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강의하신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니깐 기억이 나는데, 민법강의 때 왜 민법을 전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와가즈마 교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민법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경제법과의 만남〉

신동권 : 나중에 선생님의 연구분야가 경제법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사회를 바꾸는 수단으로서 민법에 한계를 느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민법을 보완하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권오승 : 재미있는 질문인데, 와가즈마 교수가 1920년대에 대학에 다닐 때, 그때 일본 지식인들의 진로가 두 갈래로 갈렸다고 하는데, 하나는 관료가 되어서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촌에 들어가서 민중들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신은 관료가 되어서 사회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평소에 존경하고 있던 동경대 민법담당 교수이신 하토야마 히데오(鳩山秀夫) 교수가 와가즈마에게 자기 연구실에 와서 조수(助手)를 하면서 조수논문을 쓰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와가즈마는, 과연 교수가 되어서 사회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더구나 민법학을 통하여 어떻게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평소에 존경하는 교수님의 지엄하신 분부라서 이를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그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2년간 조수로 있으면서 조수논문을 쓰고 나니깐, 미국에 가서 사회학을 공부하라고 해서 미국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귀국하니깐, 다시 독일로 가서 경제학을 공부하라고 해서 독일에 가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에 가서 자본주의 비판서적을 통독하고 나서 일본에 귀국하면서, 자기는 장차 자본주의와 사법(私法)의 관계를 해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법학자의 사명과 법학을 연구하는 자세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와가즈마 교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과학적 훈련을 거친 뒤에 평생 동안 법학을 연구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법학은 전투대열에 비유하면 최전선은 아니지만 적어도 본진은 된다는 거예요. 최전선에서 적진을 향해 공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진에서 앞에서 싸우는 군사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최전선이 적진에 넘어가 함락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학이 사회발전을 지탱해주는 본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와가즈마 교수의 그러한 설명을 접하면서, 저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학을, 민법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권과 계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민법에서 그것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계기는 1977년에 박사과정의 지도교수이신 황적인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당신이 학부에서 경제법을 강의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강의안을 주시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제법 교과서를 썼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말씀으로는 80%는 해놓았으니까 20%만 더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읽어 본 뒤에 일본과 독일의 경제법 분야의 교과서를 찾아보니까, 일본에는

경제법 분야의 대표적인 저서로서 金澤良雄(가네자와 요시오) 교수의 『경제법』과 今村成和(이마무라 시게카즈) 교수의 『독점금지법』이 있고, 독일에는 게르트 링크(Gerd Rinck) 교수의 『경제법(Wirtschaftsrecht)』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권을 갖다 놓고 읽으면서 교과서의 틀을 잡고, 우리나라 자료들을 챙겨서 교과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1978년에 황적인 교수님과 공저로 출판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법 교과서였어요. 그것이 경제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어요. 그 책을 쓰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독점금지법이 경제법의 핵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독점규제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963년부터 독점규제법 또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른바 시기상조론에 밀려서 독점규제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98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81년 4월부터 시행되게 되면서, 독점규제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법과대학에 경제법 강의가 없는 경우도 많았고, 있더라도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있을 정도이었으며, 저도 민법교수로서 민법강의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을 연구하느라 경제법 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경제법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은 경제법 분야의 주제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국내의 연구여건으로 볼 때 국내에서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경제법 분야에서 훌륭한 학위논문을 쓰기가 어렵겠다고 판단되어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그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막상 유학을 가려고 하니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제법의 핵심인 독점금지법은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르고, 대륙법계에 속하는 나라 중에서 독점금지법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독일과 일본이더라고요. 그런데 두 나라는 모두 2차 대전의 패전국인데 두 나라를 비교해 보니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일본은 전후 맥아더 사령부가 와서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 1890), 클레이톤법(Clayton Act, 1914),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914)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준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을 덥석 받아들여서 1951년부터 시행을 했지만, 그 후에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0년대에 오일쇼크가 나면서 비로소 그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했는데 반하여, 독일은 똑같은 패

전국이면서도 점령당국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여서 그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자국의 법체계와 경제현실에 부합되게 만들기 위해서 1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거쳐서 1957년에 비로소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를 계속 개정해 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독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독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독일 유학, 리트너 은사님〉

황태희 : 선생님께서 훔볼트 재단의 지원으로 독일 유학을 다녀오시게 된 계기와 그 과정은 어떠셨나요?

권오승 : 독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독일문화원에 다니면서 독일어 회화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당시 재정적으로는 DAAD(독일학술교류처)나 훔볼트 재단의 지원을 받는 길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DAAD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고, 훔볼트 재단의 지원을 받는 길 밖에 없었는데 그게 만만치 않았어요. 연구계획서와 지도교수 추천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 연구계획서야 제가 쓰면 되지만 추천서의 경우에는 영향력 있는 교수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야 한다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1980년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리트너 교수(Fritz Rittner, 1921~2010)가 한독경상학회의 초청으로 한국에 오셔서 전경련에서 논문을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보고 토론자로 참석해 달라고 해서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인연으로 제가 리트너 교수님께 직접 편지를 써서 독일에 가서 당신의 지도로 경쟁법을 연구하고 싶은데,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겠느냐고 여쭈었더니, 그 분이 한국에서 논문발표를 할 때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훔볼트 재단의 지원을 받아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지요.

이민호: 당시 유학생활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리트너 교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권오승 : 제가 독일로 유학 갈 때에 매우 절실한 마음으로 갔으니깐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리트너 교수님의 강의와 세미나도 다 들었고 또 그 분의 논문과 책까지 다 구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읽어 보니까 그 분의 사상이 너무 자유주의적이더라고요. 그 분은 모든 독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분은 2차 대전에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전쟁포로가 되어서 러시아 수용소에서 5년간이나 포로생활을 하신 분이거든요. 포로수용소에서 자유에 대한 억압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구속과 제한에 대해서 반대하셨어요. (웃음) 저는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필요하면 정부가 규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분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독일에서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년 동안 그 분의 지도만 받고 있다가 돌아오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분께 직접 도전해 보고 나서 다음 계획을 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면담신청을 했더니,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로 찾아 갔더니, 갈 때마다 안 계시는 거예요. (일동 웃음) 나중에 알고 보니 독일 교수들은 평소에 연구실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집이 워낙 좋은 곳에 있으니깐 평소에는 집에서 연구를 하고 강의나 회의가 있을 때만 학교 사무실에 나오시는데, 강의 시작한 시간 전쯤 나와서 비서와 조교들을 만나서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들 면담은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약 5분간 간단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약속시간을 잡아서 따로 만나자고 말씀드렸더니, 매주 월요일 학생면담이 끝난 뒤에 한 시간을 저와 면담하는 시간으로 비워 놓을 테니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 셈이지요. (웃음)

저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으니깐 무엇부터 여쭈어봐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질문지를 만들지 않고 그냥 들어갔는데, 제 질문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또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그다음에는 질문을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한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제시하면서 당신이 대답하기 좋은 순서대로 대답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의문이 많아서 질문지를 만드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 면담이 한참 진행되고 나니깐 질문지를 작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이미 했던 질문을 다시 반복할 수도 없고, 질문이 점차 발전해 나가야 할 터인데 발전된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처럼 얻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없고, 나중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있는 면담시간이 엄청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질문지를 작성하느라 끙끙거렸어요. (웃음) 1985년 크리스마스 때에 그 분이 우리 가족을 댁으로 초대했어요. 사모님이 아내에게 요즈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내가 "주말마다 이 사람이 질문지 작성하느라 방에 들어박혀 있어서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사모님이 리트너 교수님께 "왜 면담시간을 월요일로 잡아서 권 교수 가족의 주말을 망치게 하느냐?"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리트너 교수님이 "그럼, 화요일로 바꿀까요?" 라고 하니까,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화요일로 바꾸면 주말만이 아니라 월요일까지 고생하게 될 거예요."라고 해서,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일동 웃음)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독일 교수들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저는 강의시간마다 맨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는데, 강의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쫓아가서 인사를 해도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지나치기도 하고…….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는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냉정했던 분이 매주 월요일마다 가진 면담시간을 통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책이나 자료는 그만 읽고 논문을 쓰라고 하시면서, 저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그 문제는 법학의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헤겔을 읽어 보라, 칸트를 읽어 보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리트너 교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어요. 한번은 리트너 교수님이 몇 년에 걸친 교과서 개정판을 마치고 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집필에 참여한 제자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개최하신 적이 있는데, 저를 그 모임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고 여쭈어 봤더니(웃음), 당신도 기여를 했으니 좌우지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파티에는 전국에서 온 제자들과 사모님 그리고 비서가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가니깐, 그 분이 일어나서 거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해 가면서,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한테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내 순서가 되니까, 권 교수는 이른바 월요면담(Montagsgespräch)을 통해서 경제법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당신으로 하여금 총론 파트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는 저를 외국인 손님으로 대하던 제자들이 그때부터

저를 같은 문하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후에 저는 독일의 경제법 교수와 실무가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리트너 교수와 같은 분은 없더라고요. 리트너 교수는 질문을 받으면 주저 없이 바로 대답을 하셨는데, 다른 교수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머리카락이 희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프라이부르크에 있을 때에 그러한 현상을 처음 경험했는데, 그전까지는 공부나 연구는 책이나 논문을 보고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이론이나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제 머리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이 깨어지고 새로운 틀이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은 진통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 이전에 저는 국가가 경제활동을 더 많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밖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고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지난 35년간 간직해 온 사고의 틀 그 자체에 대하여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이지요. 당시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대체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과연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상의 틀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더 이상 책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프라이부르크 시내에 쉬로스 베르크(Schloßberg)라는 산이 있는데, 거의 매일 점심식사 후에 그 산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요.

그러한 진통을 겪고 나서 1986년에 귀국을 했더니 제자들이 선생님이 많이 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독일에 갔다 오더니 자유주의자가 돼서 돌아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동 웃음) 상당히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중국이 개방되기 전이었거든요. 그 후에 제가 잘 알고 있던 선배들 중에 중국이 개방되는 것을 보고 통곡했다는 분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은 중국의 모택동 사상을 읽으면서 거기서 우리의 모델을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모델로 생각하고 있던 대안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큰 실망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저는 그러한 경험을 이미 독일에서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독일에 있을 때에 이미 헝

가리, 체코, 러시아 출신 학자들이 리트너 교수님을 찾아와서 경제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문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경험한 중국의 변화가 저에게는 놀라운 것이 아니었지요. 이미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된 셈이지요. (웃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학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독일에 가서 리트너 교수님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리트너 교수님을 늘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있으며, 독일에 가면 꼭 프라이부르크에 가서 교수님과 몇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분이 돌아가셔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무척 아쉬워요.

서 정 : 선생님께서 독일 가시기 전에는 주로 민법을 연구하셨는데, 독일 리트너 교수에게 가실 때에는 경제법을 연구하시러 가신건가요?

권오승 : 예, 제가 독일 갈 때에는 경제법을 하려고 간 것이었어요. 그러나 계약법이나 소유권, 불법행위법 등과 같은 부분에는 관심이 있어서 민법분야 강의나 연습과목(Übungen) 및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그랬어요. 독일 교수들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전공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리트너 교수님의 명함을 보면 그 직함이 Professor für BGB, Handelsrecht, Wirtschaftrecht, Arbeitsrecht und Sozialversicherungsrecht (민법, 상법,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담당교수)로 되어 있어요. 독일에서는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을 기준으로 해서 교수자격이 부여되는데, 리트너 교수님은 전공의 범위가 아주 넓어요. 경제법은 물론이고 민법과 상법도 하고 세법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연세가 드신 뒤에는 다른 분야의 강의는 하지 않고 경제법에만 전념하셨지만. 그래서 1992년에 제가 서울대로 옮겨와서 경제법만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리트너 교수님은 한편으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경제법만 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셨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법만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법만 하게 되면 법학계에서 발언권이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민법과 다양한 분야를 함께 연구해야 법학계에서 비중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을 하는 사람은 민법만 하고 경제법을 하는 사람은 경제법만 하는 방식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서울대에 와서 경제법만 담당하게 된 것이 감사하더라고

요. 만약 제가 민법과 경제법을 함께 담당했더라면, 법대에서는 민법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법에 전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 성과도 많이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신은주 : 민법 전공자인 저로서는 그런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선생님께서 계속 민법도 하시고 경제법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민법을 도외시하고 경제법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부시절 실천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시스템의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께서 계속 경제법 쪽에 집중하셨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선생님의 주된 관심은 매크로한 담론에 있었기 때문에, 민법을 하신 것이 오히려 일종의 일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대학시절에 거시적인 시스템의 개혁을 법을 가지고 풀어내려면 그 도구가 적어도 민법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면서, 처음에 민법을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법에 전념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민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게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권오승 : 그것은 이런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젊을 때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공부할 때에는 자꾸 관심분야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연구성과를 내려면 어느 분야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제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관심분야를 넓히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하더라고요. (웃음) 저도 젊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민법교수가 된 계기는 아주 간단해요. 대학원에 와서 법학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 연구해 왔던 농촌문제를 법학적 관점에서 연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농촌문제와 연결되는 농지소유권에 관한 것으로 잡았어요. 농촌문제의 핵심은 농지문제와 농산물 가격문제인데, 농지문제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문제이고, 농산물 가격문제는 정책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소유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되었고요. 제가 농지소유권에 관한 논문을 썼다는 것이 민법교수로 초빙을 받을 수 있게 된 계기도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무엇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이끌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군복무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복학해서 한동안 법대의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서울법대에는 조교가 딱 두 명밖에 없었어요. 교수님은 약 삼십 분 정도 계셨고요. 당시 저하고 같이 조교를 했던 분은 신문대학원에 가서 공부하시다가 뒤늦게 법대로 돌아오신 분으로서 나중에 숙명여대 교수로 가셨는데, 저보다 2~3년 정도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조교가 해야 할 일은 거의 다 제가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웃음)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했어요. 제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매인 몸이니까, 그 시간에는 '누가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다 해드린다.' 그러나 방과 후의 시간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침범 받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저는 밤 11시까지 조교실에서 연구하다가 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나니깐 일과 중에 누가 무슨 일을 시켜도 아무 불평 없이 일을 하게 되고,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는 날이 있으면 그것이 아주 고맙게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을 뿐 제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누구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대 박사과정에 누가 있는지, 조교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당시 경희대에 계시던 구연창 교수님이 전화로 동아대에서 민법교수를 뽑는데 혹시 갈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조교를 마치고 독일로 유학 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도교수이신 황적인 선생님께 여쭤보니깐, "무슨 소리냐?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도 자리 잡기가 힘든 판인데, 아무 소리 말고 무조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저는 그런가보다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지요. 그렇게 해서 민법 교수가 되었어요. 일단 민법교수가 되었으니깐 민법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만난 제자랑 지금도 좋은 인연을 맺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구연창 교수님이 저를 다시 경희대로 불러 올렸어요. 구 교수님은 저를 데려다 놓고 그 다음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어요. (웃음) 제가 경희대에서 한 학기 강의를 마치고 나니깐, 철없는 학생들이 구 교수님께 찾아가서 "권 교수가 구 교수님보다 강의를 더 잘 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웃음) 구연창 교수님은 환경법 전공이시고 약간 눌변이거든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당신이 아시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어요. 만약 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기분이 상했을 것 같은데, 그 분은 "그러니깐 내가 그 분을 모셔왔지. 안 그렇다면 내가 왜 모셔왔겠어?"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니깐, 당신도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고, 둘 다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대요. (웃음) 저는 구 교수님께 지금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아쉽게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경희대에 11년간 근무하다가 서울대로 부임해 와서 23년간 근무했어요.

〈사모님과의 만남과 결혼〉

신은주 : 사모님도 법학을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혹시 그것이 전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오승 : 제가 대학 1학년 때인데요, 같은 반에 있던 친구가 이화여대 법대에 다니는 친척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969년 6월 4일, 종로에 있는 어느 다방에서 처음 만났어요. (웃음) 법대생들 끼리 만났으니깐 "무슨 강의를 듣느냐?" 뭐 그런 것을 묻다가 공통관심사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방학만 하면 농촌봉사활동 하러 간다고 시골로 내려가고, 그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 하러 갈 정도로 우리는 지향하는 바가 많이 달랐어요.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정도 사귀다 보니까 서로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졸업할 때가 가까워지니깐 그 사람한테 중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자들의 결혼이 빨랐거든요. 상대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왔거나 거기서 직장을 잡은 사람 등과 같이 이미 결혼할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을 보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기다리라고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보내자니 정이 많이 들었고, 기다리라고 하자니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을 잡아야 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기다리라고 하면 불안해 할 것 같아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오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일동웃음)

이봉의 : 그런 진부한 거짓말을 하셨군요. (웃음)

권오승 :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아주 진지하게 했어요. 제가 진지하게 말하니까 그 사람도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고민하던 중인데 제가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도 이미 지나친 감이 있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만약에 다른 데로 시집가면, 네가 불행하게 될 것이고, 그런 너랑 사는 사람도 불행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불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른 데로 가면 그것은 불행을 확산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한테 오면 당신이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도 행복하게 되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나는 애들도 행복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은 행복을 확산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상당히 센 구라를 쳤지요. (웃음) 확인사살까지 한 셈이지요. 그런데 그해에는 서울대와 이대가 우연히 졸업식이 같은 날이었어요. 저는 졸업식에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올라오시니깐, 이 기회에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발전해서 졸업식 날 저녁에 아예 약혼식을 하자고 해서 약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일동 웃음) 제 속셈은 약혼식을 하고 나면 좀 더 기다리라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여자 쪽에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여자 쪽에서는 약혼과 결혼사이에 너무 긴 기간을 두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결혼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결혼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이었지만, 당시에 그 사람의 부모님이 경영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해서, 저는 대학원 1학년 때에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웃음) 그리하여 한동안 참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때 저는 아내에게 약속어음도 써주고 그랬어요. 7년 뒤에는 당신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일동 웃음)

이봉의 : 그게 변제가 잘 되었나요? (웃음)

권오승 : 그게 잘 되었겠어요? (웃음) 근데 요즘 아내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고 물으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해요. 젊은 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깐 아내는 저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성품이에요. 저는 그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은주 : 대학 다닐 때에 농촌활동에 빠져 있는 법학도를, 그런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여학생이 계속 좋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서로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시는 사모님과 선생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권오승 :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이 어렸을 때에 집안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대하여 상당히 예민하게,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없이 자란 사람들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동 웃음)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나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를 잘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은주 : 무지의 덕을 보셨군요? (웃음)

권오승 : 우리 집사람 말로는, 젊을 때 자기 이상형은, 안경 쓰고 키 크고 얼굴 검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웃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느냐 하면, '참, 하나님은 기묘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깐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셨구나!' 생각되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에 서로가 상대를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오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한 뒤에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거든요. 저는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은 이러저러한 것인데 그건 내가 보기에 차원이 낮은 것이니까, 내가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실현시켜주면 그 사람도 행복하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참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제가 신앙적으로 거듭난 뒤에 가장 덕을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걸 존중해 주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아내가 저랑 같이 있는 것이 불편했대요. 왜 제 눈에는 남의 약점이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그런데 제가 바뀌고 난 뒤에는 아내의 얼굴도 훨씬 더 밝아지고 편안해졌어요.

〈사법개혁위원회 활동과 로스쿨 도입〉

이봉의 : 화제를 돌려서, 김영삼 정부 때 로스쿨 도입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는 데 관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에서 법조인력의 양성방식을 선진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로스쿨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그것을 추진하던 분들이 생각하셨던 로스쿨의 모습이 2007년 여름에 갑자기 로스쿨법이 통과되면서 실제로 도입된 로스쿨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오승 :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인데요, 제가 1992년에 서울대에 부임해 왔는데, 1995년 초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세추위' 이름으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률가 양성제도를 대폭 바꾼다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저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발표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세일 교수, 당시 청와대에 수석으로 계시던 분이 전화로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되겠는데 권 교수가 실무적인 책임을 맡아서 도와 달라고 해서, 제 이름을 밖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도와드리기로 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신문에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법조 5적'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중에는 'K교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K교수는 누굴까?' 하고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K교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저 혼자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웃음) 저는 순진하게 제 이름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으니깐 남들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요. 그때는 기자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연구실로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들을 안 만났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구했던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률가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가 양성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법률가 양성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사시를 통해 선발하는 시스템에서 교육을 통해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었어요. 2+3이냐, 4+3이냐를 놓고 한참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로스쿨을 전국에 다섯 내지 일곱 개 정도 두느냐, 아니면 두세 개 정도를 두느냐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랬어요.

이봉의 : 그렇게나 적게요?

권오승 : 우리 생각에는 전국에 고등법원 소재지에 하나씩, 그리고 서울에 복수로 두게 되면 최대 7개 정도를 생각했어요. 법원 쪽에서는 그것도 많다고 하면서 사법연수원을 개편해서 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를 두자는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안이 상당히 진척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사될 법도 했는데, 그 해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에서 졸지에 소수당으로 바뀌면서, 정치력을 통해서 개혁하려고 했었는데 정치적인 힘이 빠져 버리니깐, 그때까지 우리를 못 만나서 애쓰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급한 마음에 기자들한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더니, 얼마 전까지 저를 만나지 못해 안달하던 기자들이 저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웃음) 힘이 있을 때는 몰려오다가 힘이 빠지면 쫙 빠져나가는 것을 실감했어요. 기자의 생리가 그렇다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실패로 끝났지만, 법률가 숫자를 늘리는 것은 성공하고,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은 실패했으니 절반의 성공에 그친 셈이었지요. 우리 경제법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때 사시의 선택과목을 늘리면서 경제법이 선택과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웃음) 제가 경제법에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과 소비자보호법을 다 넣어야 하다고 했더니, 그렇게 많이 넣으면 누가 선택하느냐고 해서 (웃음) 독점규제법과 소비자보호법만 넣고 중소기업법은 시험범위에 넣지 않았어요.

그 후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2007년에 법이 통과 돼서 2008년부터 로스쿨이 도입되었는데, 저는 로스쿨제도가 비로소 도입되었으니까,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2008년 3월에 공정위에서 학교로 돌아와서 제1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았지요. <시장경제와 법적 규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조별로 만나서 면담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로스쿨 강의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과 아울러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주된 이유는 학생들이 너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학생들을 사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지식과 경험 및 서비스 정신을 고루 갖춘 유능한 법률가로 양성해 내고 싶었는데, 요즈음 학생들을 보니깐 학점 따느라고 쩔쩔매고 변호사시험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선택과목 중에서 변호사시험과목이 아니면 아예 수강도 하지 않고……. 이러한 모

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들의 진로도 법원과 검찰 및 대형 로펌 그리고 몇몇 대기업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사시 출신들의 진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게다가 그 대우가 사시 출신들보다 열악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예요. 우리는 로스쿨 출신들을 좀 더 다양한 분야, 예컨대 정부의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문화 예술, 사회복지 등 종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던 분야에까지 널리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면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는 이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돼요. 물론 이러한 목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로스쿨 제도가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나가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로스쿨을 도입한 지 7년이 지났으니까, 이 제도가 당초의 의도대로 제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만약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쟁법과 제자양성〉

황태희 : 예전에 법대시절을 거치면서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는 경제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지금 말씀하셨던 로스쿨 체제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었을 때 앞으로 경제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나 학생들이 좋은 연구자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권오승 : 경제법 쪽도 그렇지만, 로스쿨이 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실무 쪽으로 나갈 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평생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이 대폭 줄어서, 지금은 조교시킬 학생을 찾기도 어려워요. 외국인 학생밖에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교수들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법학이 원래 순수학문은 아

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또 이론적인 관점에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그러니깐 양쪽을 겸비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제법이 실제의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경험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질서 내지 경쟁질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경제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선 여러 선진국의 법제도와 이론 및 경험을 연구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즈음 대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따라서 그들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관심은 있어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겠지요. 그러다 보니깐 그들에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더 긴 호흡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학문적 소양이나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박사과정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그러한 소양이나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들이 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우리 경쟁법센터에서라도 1년에 한 명씩 그러한 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형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에서 배출한 첫 제자들이 84학번들이고, 그들이 현재 경제법학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성장과정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제가 1992년에 서울대에 부임해 온 뒤에 경제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돌이켜 보면, 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거나 유행을 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노동법 쪽에 학생들이 많이 몰렸으나, 그 후에는 경제법 쪽에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석사과정까지는 학생들을 비교적 쉽게 받는 편인데, 박사과정에는 평생 함께 공부할 사람들을 뽑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할 텐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경제법 전임교수가 있는 대학이 서울대와 전남대 두 곳밖에 없었고, 장차 경제법 전임교수를 채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모두 다 자리도 잡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학문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격려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자가 비교적 많은 편인데, 특히 제가 경제법이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는 참 제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신동권 : 로스쿨 졸업생들 중에서 학문을 전업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예전보다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스쿨을 졸업하면 바로 변호사가 된다는 점에서 여건은 오히려 더 좋아진 편이 아닌지요?

권오승 : 글쎄, 그 원인은 좀 더 분석해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짐작하기로는 우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고, 그다음은 아마 대우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로스쿨 졸업하고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가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계속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우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대형로펌에 취직하면 당장 보수를 교수보다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교가 되어봐야 한 달에 150 내지 200만원 정도를 받을 텐데, 그것도 정식 조교가 되어야 그 정도 받지요.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정도도 어렵거든요.

황태희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요?

권오승 : 저는 독일의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교수들이 조교(Mitarbeiter)를 몇 사람씩 두고 있는데, 그들이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박사논문(Dissertation)을 쓰기도 하고, 계속 연구할 사람들은 그 기간을 더 연장해서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대학에서 연구하다가 실무에 들어가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수한 교수 밑에서 조교를 한 경력이 실무에서도 높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에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터이니, 그때까지는 우선 연구소나 센터 같은 곳에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 보면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은주 : 제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선생님께서 예전에 예수님처럼 12제자만 키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웃음) 그런데 지금 선생님의 제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웃음) 그 이유가 특별히 노동법에서 경제법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이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권오승 :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서울대에 강의하러 왔을 때의 분위기를 얘기하면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1987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해부터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 강의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대학원 강의를 문화관에서 했어요. 제가 매주 경희대에서 여기까지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느낀 것은 제가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같은 강의를 듣는 대학원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지만 서로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다가 학기가 끝나고 종강 파티를 하면 그때 비로소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그랬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기 중에 1박 2일간 블록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지요. 사회과학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인데,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 서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나서 블록세미나를 다녀온 뒤에는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학부의 경우에는 당시에 경제법이 폐강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학부강의는 제가 1989년인가 90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당시 교무부학장을 맡고 있던 최송화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로 경제법 강의가 폐강될 위기인데 혹시 경제법 강의를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하시길래, 저는 만사를 제쳐 놓고 하겠다고 했지요. 저는 경제법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인데 서울대에서 경제법이 폐강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서울대에서 경제법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첫 시간에 당시 박사과

정에서 경제법을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원생 한 명을 데리고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강의실에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일동 웃음)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창피했던지, '차라리 혼자 왔으면 이렇게 창피하지나 않을 걸…….' 같이 온 박사과정 학생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웃음)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학생들이 경제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법의 핵심인 독점규제법은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시장경제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이와 같이 강의의 주제나 내용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가 강사에 대한 사전정보도 부족하고, 또 개강 첫 주에는 강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향도 있어서, 학생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첫 시간부터 강의를 하겠다고 달려 왔는데, 강의실에 아무도 없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다행히 그다음 주에는 20명 정도가 들어와서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수강생들의 태도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신문을 보거나 팔짱을 끼고 앉아서 시간강사가 하는 강의를 '들어 준다'는 식이었어요.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널널한 애들만 들어왔었대요. (웃음) 그러나 저는 강의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학기말에 어떤 여학생이 강의평가를 올렸는데, 자기는 정말 법대에 와서 이런 강의를 처음 들어 봤다고 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강추한다고 했더라고요. 수강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그다지 성실하지 않았으니 답안지가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강생의 절반 정도에게 F를 줬어요. 시간강사로 와서 수강생의 절반에게 낙제 학점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수강생이 40명으로 늘어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서울대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동 웃음)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 이유가 다양하더라고요. 경제법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한 학생들도 있고, 작년도 강의 평가를 듣고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도 있지만, 작년에 F학점을 받고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웃음)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해마다 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40명에서 80명으로, 그 다음 해 제가 전임으로 왔을 때에는 12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 꽉 찰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경제법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지요. 대학원에서도 경제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 한동안은 경제법 전공자가 아닌 학생들 중에도 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분위기는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이봉의 : 혹시 현재 경제법을 전공하고 있거나 장차 전공하려는 후학들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권오승 : 우선 경쟁법 소사이어티(society)가 좀 더 크고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학부나 로스쿨에서는 경쟁법 강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만 강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원의 경우에는 좀 달라야 할 터인데, 대학원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경제법 세미나에 참가하거나 경쟁법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중의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그 분야가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차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터인데, 그중에서 시장진입장벽(market entry barrier)이 가장 높은 분야가 경쟁법인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었어요. 솔직한 것은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인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산업분야 중에는 경쟁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연구하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하긴 동기야 어떻든 간에 경쟁법을 연구하다가 보면, 그들이 문제의식도 갖게 되고 전문성도 갖추게 되면서 경쟁질서의 확립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도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

서 정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서울대에 강의하러 오셨을 때에는 학생들이 없다가 점점 늘어났듯이 처음에는 경쟁법 자체가 상당히 마이너(minor)한 과목이었고, 독점규제법도 1980년에 제정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의 수단 정도로 여겨졌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연구하시면서 경쟁법 분야도 발

전하고, 선생님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마이너한 학문으로서 경쟁법을 계속 키우시면서 연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나가서 경쟁당국의 수장으로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시면서 양쪽을 다 경험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자와 관료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권오승 : 좋은 질문인데, 제가 그렇게 경쟁법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주 생소했잖아요. 제가 1986년에 독일에서 돌아와서 1987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1988년부터 '경쟁법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 모임이 한동안 휴면상태로 있다가 2000년에 다시 중흥총회를 열어서 한국경쟁법학회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지만, 선배 교수 한 분이 어느 자리에서 "야, 경쟁법학회라는 것이 생겼단다. 경쟁법이 뭐지? 법을 경쟁하듯이 하는 것인가?" (일동 웃음) 제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비웃듯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경쟁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제법 내지 경쟁법을 연구하다가 보니깐 정책과 현실에 대하여 자꾸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러 저러한 제안도 해 보고 비판적인 의견을 글로 표현하기도 하다가 보니깐 공정위에서는 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그런데 1996년 4월 1일이 공정거래법 시행 15주년 기념일인데, 김인호 전 위원장이 저한테 그날 기념식에 와서 지난 15년 동안 공정거래법 집행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3월 중순경에 그러한 요청을 받고 강연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원고를 써놓고 보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비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과 표현을 좀 더 다듬어 보려고 노력했으나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내용은 그대로 두더라도 표현만이라도 좀 더 부드럽게 다듬어서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했을 터인데,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5주년 기념식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공정거래법 시행 15주년 기념식은 결국 공정위로 말하자면 생일잔치인 셈인데, 제가 생일잔치에 와서 축하하고 덕담을 해야 하는데, 원고를 준비해 놓고 보니까 덕담이 아니라 고언(苦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나 15살이면 사람으로 치면 고1에 해당되는 나이인데,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일류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

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같이 공정위도 앞으로 3년을 잘 보내면 일류기관으로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류 내지 삼류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위가 일류기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고 또 공정거래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터이니, 듣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있더라도 오해 없이 들어 주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한 뒤에 강연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때가 마침 김인호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었을 시기라서 장차 공정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상이 다 잡히지 않은 상태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메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료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위원장이 앞자리 앉아서 열심히 받아쓰니까 상임위원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동 웃음) 강연회 분위기가 숙연했지요. 뒤에 기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해서 저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일 아침신문에 비판적인 기사가 크게 보도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다음 날 다른 신문에는 아무런 기사도 나오지 않았는데, 유독 한겨레신문에서 박스 기사로 '서울대 권오승 교수, 공정위 발가벗기다!' 라는 제목으로 (웃음) 자세한 기사가 났는데, 내용을 보니깐 아주 잘 썼더라고요. '위원장이 특별히 권 교수에게 공정위를 발가벗겨 달라고 주문을 해서 권 교수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위기가 후끈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공정위의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다들 기사를 안 쓰기로 했는데, 한겨레 기자만 그런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그런데 그 후 1986년 말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때에, 제가 그 강연에서 주장한 내용을 많이 반영했더라고요. 법 제3조의 시장구조의 개선과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제가 그러한 방법으로 법 개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나 독점규제법에 대하여는 제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국회나 공정위가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시계에 민법에 관한 글을 쓰면 수험생들이 보고 좋아하는데, 독점규제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민을 해서 좋은 글을 쓰더라도 보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으니, 그 파장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왕 하려면 집행당국에 들어가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잖아요. 저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오라고 해서, 가서 여

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았지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지 진지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번은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을 맡고 있던 분이 저보고 "권 교수님은 언제까지 자문만 하고 계실 겁니까? 직접 자문 받는 자리로 한번 가보시지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공정위에 가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어요. 마침 청와대에서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저도 하마평 중 마지막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가능성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되더니, 드디어 제13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게 되었어요.

신동권 : 선생님께서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될 당시에 제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선생님이 재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점이었고, 그것을 논문으로 검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는데, 뜻밖에도 신문 인터뷰 제목이 "경쟁질서만은 바로 잡겠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역대 위원장들은 주로 재벌정책에 관심이 있었는데, '경쟁질서를 바로 잡겠다'라는 소신은 선생님이 학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정거래법이 원래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사실은 경쟁질서에 관해서는 교수들이 학문적으로 연구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쟁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호탄을 쏘신 것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오승 : 신 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당시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정부가 경쟁법이나 경쟁정책과 같은 것은 잘 몰랐고, 전임 위원장이었던 강철규 교수도 재벌규제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지 경쟁정책을 연구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저를 검증할 때에도 주로 재벌규제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입장을 체크했지, 경쟁법이나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1년 초에 서울대학교 법학지에 "일본의 재벌 해체와 그것이 한국재벌정책에 주는 의미"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재벌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저는 공정위가 재벌규제기관이 아니라 경쟁당국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려면

공정위가 종래 주로 불공정거래행위나 카르텔 규제와 같은 행태규제에 치중하던 태도를 버리고, 앞으로는 기업결합규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규제에 중점을 두고 구조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시장의 독과점화가 고착된 나라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고,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제하되 그 시정조치는 구조적 조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봐도 그것이 시대적인 요구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재벌규제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깐, 개별시장 중심의 경쟁정책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재벌의 계열회사들이 순환출자를 통해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개별 시장의 경쟁제한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겠다 싶어서 먼저 이러한 순환출자부터 해소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당시 부위원장이 "그거 시작하시면, 다른 일은 하기 힘들 겁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말리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그 말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공정위 내부적으로 보면 그 일은 '기업집단과'가 하면 될 문제인데, 그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될까?' 하고 간단히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깐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힘이 얼마나 큰 지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공정위에 들어가서 재벌문제를 건드리기 전에는 재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연초에 경제부처를 순시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공정위에 제일 먼저 가서 공정위에 힘을 실어 주셨잖아요. 그것은 정말 잘 하신 일인데, 당시 대통령이 공정위에 가서 기껏 질문하신 것이 재벌문제와 하도급문제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저것이 공정위의 주된 과제가 아닌데, 왜 저걸 지적하시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공정위가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벌규제와 하도급규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민호 : 학자 출신으로 기관장이 되면 조직과의 융화나 다른 부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런 점은 없으셨는지요?

권오승 : 대개 학자들이 공직에 나가면 조직장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이 붕 떠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저도 처음에 그러한 위기를

경험했어요. 공정위에 가서 2주도 채 안 되었을 때인데, 인사과장이 부이사관 승진 서류를 들고 와서 결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직 인사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무슨 승진서류입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과장이 "사실은 전임위원장이 결재하고 가셨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신 것이니까, 위원장님은 그냥 싸인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때 거기에 싸인을 했더라면 임기 내내 상황파악도 못하고 계속 싸인만 하다가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직관리에 있어서 인사권이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사권을 그들에게 내어 주고 나면 저는 조직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마 강연만하고 다니다가 돌아왔을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합시다."라고 했더니 복도통신에서 들리는 얘기가 신임 위원장이 앞으로 몇 달간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인사는 적절한 때가 있는 것인데, 몇 달간 인사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이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야단을 친 뒤에 인사과장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인사과장이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대로 밀고 나갔지요. 그 후에도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그러한 방법으로 결국 조직장악에 성공했지요.

또 하나는 청와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배석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공정위는 재벌과 싸워야죠, 힘센 경제부처와도 싸워야죠, 온갖 힘이 있는 사람과 싸워야 할 텐데, 공정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청와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제가 무슨 힘으로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청와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좋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만 하고 나왔으면 됐을 텐데(웃음),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나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전임 위원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간섭한 적이 있는지? 이때까지 간섭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책은 협의해야 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정책

은 협의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게 어떤 자리라고 거기서 그런 소리를 했느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임명장을 받았으면 '예, 신명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왔어야지요."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 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와 비서실장도 다 함께 배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센스가 아주 발달한 분이라서, 국무회의에서도 가끔씩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힘을 실어 주곤 했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기는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다른 국무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가 가끔씩 고개를 끄떡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번은 대통령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될 텐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제가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과 눈이 마주쳤거든요."라고 하시면서, "공정거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가 잘 돼야 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께서 별 다른 의미 없이 한 말씀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오랫동안 관료생활을 해왔던 분들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대통령께서 위원장에게 힘을 확확 실어주시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국무위원 중에서 어떤 사람도 저한테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청와대가 잘 도와줘서 저는 정부 내에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동권 : 집행당국의 수장으로 계시면서 실제로 법을 집행하시면서 느끼셨던 소회나 아쉬움 내지는 공정위의 발전을 위해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승 : 제 나름으로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한계가 있었지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의 한계는 우수한 직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태도를 보면, 대체로 정책지향적이어서 규범적으로는 철저하지 않아요. 예컨대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를 규제할 때에도 '이 놈은 나쁜 놈이니 깐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그들의 행위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결과,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도 나중에 법원에 가서 패소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그래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에 대하여 열심히 조사해서 규제했는데, 규범적인 요건

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공정위가 준사법적 독립규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정책적 어프로치에 만족하지 않고 규범적으로 조금 더 정치하게 따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법률전문가를 대폭 충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TO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법률가를 충원하려면 그 대신에 행시 출신의 충원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6급에서 승진하는 직원들의 수도 줄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깐 그 저항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게다가 변호사들은 공정위에 와서 오래 근무하지를 않는 경향이 있어요. 몇 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일할 만하다 싶으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조직 내부에서는 법률가의 충원을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위원장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법률가를 대폭 충원하기가 어려워요. 이와 같이 법률가를 신규로 채용하기도 어렵지만, 이미 잘 훈련된 중견법률가를 충원하기는 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궁여지책으로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부장판사 2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 로펌에서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충원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지만, 초빙되어 오신 분들이 전문성은 물론이고 서비스정신을 잘 발휘해 줘서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규범적인 역량이 제고되기 시작했어요. 국회에 가면 공정위가 왜 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가 라는 비난을 받고 그랬는데, 이에 대하여 저는 "제 후임 위원장은 적어도 그런 것으로는 비난받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장담했는데, 최근에 그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저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면모를 제대로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문제는 우리 법률가들 중에서도 경쟁법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차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공정위에 있을 때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직원들, 특히 상임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이었어요. 상임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심리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상임위원들이 사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대리인이나 피심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그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면, 대리인이나 피심인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상임위원들 중에는 경쟁법

은 물론이고 법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공정위가 오랫동안 주로 불공정거래행위만 규제해 왔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기업결합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가 끝나고 나서 합의할 때에 보면 주심위원이 제시하는 조치의견이 소수의견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주심위원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 주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느냐?"고 따지게 되면, 저는 "왜 주심위원의 의견이 소수의견이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설득력 있게 작성했어야지요." 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경쟁법이나 경쟁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차이 때문인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반하여, 상임위원들 중에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좀 더 전문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위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안타까웠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공정위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력도 갖추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공정위 출신들이 국회에도 많이 진출하고 해서 공정위가 법을 개정하거나 할 때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민호 : 선생님은 공정위 위원장으로서 경쟁법의 집행과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귀한 경험을 하셨는데요, 위원장을 하시고 나서 기존의 경쟁법 이론에 대해 생각이 바뀌신 부분이 있다거나 연구나 교육에 있어서 달라져야 하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권오승 : 공정위에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제자에게 했던 얘기 중에서,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하길래 무슨 일이 그리 많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공정위 심판정에서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보니까, 그들이 반드시 필요한 주장만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느냐?"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일동 웃음) 그랬더니 그 제자는 "선생님, 심판정에서는 위원장만 듣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선생님처럼 이론적으로 밝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나 고객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더라고요. (일동 웃음) 저는 그 말을 듣고서 그런 측면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깐 이론과 실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공정위에 가서 느낀 점은 대학에 있을 때는 열심히 연구해서 발표해도 공정위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법을 집행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공정위에 가서 재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해 보니깐 정확한 답이 없더라고요. 순환출자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고 나면 그다음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은 아무리 집행권한이 주어지더라도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연구와 법집행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구 성과가 계속 쌓여야 집행기관이 이를 집행할 수가 있고, 또 법의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그것을 자료로 해서 다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연구와 법집행은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인력도 점차 늘어나고 연구업적도 많이 쌓이고, 또 법집행기관의 실무도 더욱 발전하여, 양자가 조금 더 긴밀하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서 정 : 우리나라에 독점규제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30년 남짓 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권오승 : 중국이 2002년 베이징에서 반독점법의 도입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을 때에,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의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온 학자가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활발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비판적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점규제법은 경제질서의 기본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법이 아직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줄 아느냐? 우리는 100년이 걸렸고, 유럽도 60년이 걸렸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 20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 않는가? 20년에 그 정도하면 잘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너희들이 100년 걸렸다고 우리도 100년

걸려야 하느냐? (일동 웃음) 우리는 좀 더 단축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대응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대처하라고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저에게 "그래도 한국에는 집행기관도 있고 너와 같은 전문가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대단한 것이다."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비로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이만큼 성장한 것도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쟁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본, 중국 등과 같은 이웃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편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베트남이나 태국 또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집행을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법연구소와 정년 이후의 계획〉

이봉의 : 선생님이 2004년에 아시아법연구소를 설립하신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아시아법연구소에 대해 말씀을 하자면 정년 이후 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아시아 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향후 선생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승 : 그것은 제 신앙적인 사명과 관련이 있는데,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제가 서울대로 부임해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한 뒤부터였어요. 제가 서울대로 옮겨온 뒤에 한동안 힘들었던 것은, 서울대에 왔으니까 전공인 법학을 더 열심히 연구해야 할 터인데, 법학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신학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신학 쪽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20년간 법학, 특히 경제법을 열심히 연

구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그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제법은 바람직한 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인데, 여기서 키워드(key word)는 '바람직한 경제질서'인데, 그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저는 제 눈으로, 즉 제 가치관과 세계관을 기준으로 바람직한 경제질서를 모색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험한 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보다 늦게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나라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웃나라들 중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004년에 사단법인 아시아법연구소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아마 가까운 동료 교수들 중에서도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일로 제가 외국에 자주 나가는 것을 보고, "권 교수는 외국에 선교하러 가는 건지, 세미나 하러 가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예요. 사실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에 나갈 때 선교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세미나 하러 가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그 목적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세미나 하러 갔다가 교회에서 간증이나 설교를 해 달라고 하면 간증이나 설교를 해 주기도 하고, 반대로 선교하러 갔다가 대학에서 특강이나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면 특강이나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내에서 외국인 교수를 초청할 때에는 가능한 한 대접을 잘 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는 동료 교수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 교수들은 자존심이 강한 편인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터이니 '와서 들어 보라'고 하면 그들은 잘 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학술대회에 그들을 초청해서 발표를 시키면 그들도 기꺼이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발표와 다른 사람의 발표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돌아가면서 예외 없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는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나라보다 늦게 발전하는 나라에 대하여 낮은 자세로 접근해서 그들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정년을 앞두고 정년한 뒤에 무엇을 할까 하고 깊이 생각해 봤는데, 정년 후에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태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 오던 일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경제법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법 연구와 이웃나라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인데, 두 가지 모두 기독교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시간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위의 두 가지 일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은주 : 아시아법과 법제정비에 관해서 한 때 선생님께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적도 있고, 규범적으로 '아시안 스탠다드'(Asian Standard)를 만들어보자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어찌보면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법제 정비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경쟁법이 대표적인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시거나 구체화시킬 생각이 있으신지요?

권오승 : 좋은 말씀인데, 제가 최근에 반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를 설립해서 제가 초대소장을 맡았잖아요. 여기서 저는 각국에서 한국법에 관심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나 법학자들을 불러서 1~2년 정도의 LL.M. 코스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었는데, 제가 만약 그렇게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않고 우선 가능한 작은 일부터 시작했더라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너무 큰 것만 생각하다가 막상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하지 못하고 마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법연구소의 경우에도 제가 너무 큰 목표만 추구하다가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일조차 하지 못하고 마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베트남이나 몽골, 또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나라의 경쟁법을 정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참여해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선 각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연구나 경험도 축적하고, 교류나 협력도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민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나라의 법과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너무 큰 과제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아시안 스탠다드'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여러 개도국들이 한국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한국법이 미국법이나 유럽법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이나 민주화를 부러워하거나 따라잡기가 쉬울 것으로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쟁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시장의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정부주도로 소수의 능력있는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고도성장에 성공한 나라에서 경쟁법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쟁법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쟁법이 우리나라의 경쟁법보다 더 발달했다고 해서 그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수 없듯이, 우리나라의 경쟁법을 베트남이나 몽골 등에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법의 집행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내셔널 스탠다드를 비교해 보고,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쟁법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어떤 정치인을 만났더니,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CJ와 영화상영관을 계열분리를 시키면 안 됩니까?"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화상영관에서 소규모의 영화제작업자들도 마음 놓고 그들의 작품을 상영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벌구조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개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재벌구조 하에서라도 공정한 경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부당지원행위만 금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계열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작은 문제에서부터 해답을 찾아가면서 그러한 노력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법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나 중국어 등으로 번역해서 공급하는 작업도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인력과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동 웃음)

이봉의 :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신지요?

권오승 : 예,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어요. 우선, 경제법의 핵심인 독점규제법의 연구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각 산업분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보호와 같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통한 사회조화의 실현에 대하여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최근에는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경제적 약자의 보호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작년에 중소기업법에 관한 논문도 써보고 대학원에서 세미나도 해보고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웃나라, 특히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법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시장경제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그들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장차 아시아에서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봉의 : 그럼 이것으로써 아쉽지만 선생님과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동 :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동박수)